|  |  |  |  |
| --- | --- | --- | --- |
| **팀명** | AI제조 팀 | **이름** | 남도형 |
| **일시** | 8/1 | **장소** | 온라인 |
| **프로젝트명** | 머신러닝을 활용한 스마트폰 불량품탐지 | | |
| **개별활동**  **내용** | 의사결정나무는 지도학습의 한 종류로,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분류 모델이다. 데이터의 특성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분할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나무 모양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의사결정나무의 장점은 크게 직관적인 모델이라는 점이다. 나무 형태로 표현되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해석하기 간단하다. 또 데이터 스케일링이나 정규화가 필요 없다. 입력 데이터의 스케일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Ensemble Method는 여러 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결합하는 방법론이다. 같은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도 되고, 다른 모델들을 만들어 결합해도 상관없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모델을 사용하며 여러 개의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Bagging, Boosting, Stacking로 구분된다.    우선 Stacking부터 설명하면 여러 개의 weak learner의 예측값들을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최종적인 정답을 학습하는 decision model 하나를 stack한 구조이며 병렬 + 직렬 구조이다. | | |
| **향후추진 계획** | Boostin, Bagging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이다. | | |